社 說

침묵만이 최선은 아니다

— 교수협의회에 거는 우리의 기대

조영식 총장이 한의대 유급사태와 관련, 사퇴한지 한달이 지났다. 학교의 설립자로서 지난 45년간 학원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조영식 총장의 갑작스런 사퇴는 우리 모두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위기, 혹은 느끼는 위기의식은 조영식 총장의 사퇴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사퇴 이후에 우리 스스로의 침묵이 가져온 혹은 전망과 대안의 부재에 기인하는 위기의식이 더욱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위기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의 위기, 즉 전망의 부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온다. 우리학교의 경우 총장의 사퇴 이후 총장선출에 관한 아무런 대안들이 마련되지 못한채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의 본질은 점점 더 꼬리를 감추어 가고 의혹과 의심과 반목의 목소리들만 커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어찌면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 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대답은 자명하다. 모든 정회인의 중지를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과 전망을 세워야 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지난주에 정회발전과 총장선출을 위해 의결개진 운동을 전개한 것은 그 형식과 결과물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론들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로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현실적으로 신임총장 선출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교수협의회의 침묵이다.

총장사퇴이후 교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진행해나가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가지이유와고민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교수협의회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고 막중함을 알고 교수협의회에 거는 기대 또한 크기 때문이며 학내에 난무하는 각종 성명서와 투머 속에서 우리가 더 큰 위기와 혼란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총장 선출의 문제에 있어서 대학 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수협의회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주도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정회 역사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교수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권위와 권리는 부정될 수 밖에 없으며 알장서야 할 사람이 뒤처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공사 중단'사태를 어떻게 볼것인가

— 수원교문진입로의 공사중단을 지켜보며

지난 7월8일 착공에 들어간 수원 교문진입로 공사가 공사진행 두달 보름여일만에 중단되었다. 그동안 학교당국과 학생대표측간의 공사 계획 전반에 관한 의견차이로 몇차례에 걸친 협의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학생 측의 기존 합의 사항 전면이행과 현 진행 공사의 중단 요구가 현실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공사 강행의 학교 측 입장이 맞서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에는 지난 24일 천막 바리케이트를 동원한 학생대표측의 실력저지로 급기야 공사가 중단아닌 중단을 하게 된 것이다.

현재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공사중단 과정상의 문제와 배경, 또 이를 보는 학교당국 학생대표측간의 시각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졸속공사'는 당연히 중단되어져야 할 공사이기에 다섯차례에 걸친 공사중단 요구끝에 "우리는 실력으로라도 막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학생대표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학교당국은 공사의 진행 관계상 단계별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빚나무선 우측 주차장 쪽 2차선은 1단계공사로 올해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이후 4차선 확장공사는 부설연구소인 캠퍼스개발연구소와 조경계획연구소에 계획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졸속공사'주장과 '단계별 공사'주장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이 공사 시작 초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당국은 서로간의 협의가 있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대표측은 합의한 내용이 다르며 단계별공사 주장자체가 기만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학생들이 제시한 대안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의한다면 7월초부터 시작하여 현재 8천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진행했던 공사는 단순히 학생들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서야 공사중단을 실력으로 저지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학생대표측은 나름대로 지난 학기동안 진입로 계획안을 공모, 여름방학 기간중에 비록 상충부에서만 이루어지긴 했지만 의견수렴과정도 거쳤다고 한다. 결국 학교측에 제시하고 있는 안은 8월중순에야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달여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공사에 대한 학생 대표측의 입장은 '그곳에 도로가 아닌 진입로후면의 문화공간부지, 보도가 생길줄 알았기 때문에 지켜보았다'라는 식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학교당국도 분명 문제가 있다. 공사 초기 협의가 있었다면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것은 오류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희의 얼굴'을 만드는 이 공사를 바라보는 일반학생들의 답답함과 무관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학교당국·학생대표 측모두 간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반학생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 부족에 있겠지만 상충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강행, 중단요구, 공사중단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이러한 양태들을 이미 경험한 바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재단과 정부의 합작품—교육후진국

사립

— 사립학교 분규원인과 그 대책

장 경 석
〈한국대학신보 기자〉

"교육재정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곧 아무 관련도 없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 앞으로 사회에 베출되면 큰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지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생각이다. 장학금 수혜자를 최대한 늘리되 그들이 사회로 진출한 이후에 갚도록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은가."

지난 17일 초청강연차 다녀간 92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S 베커 교수가 "교육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한 내용이다. 경제학자다운 대답이다.

그는 그동안 시장경제 이론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인간행위영역에 경제이론을 확대, 적용시켜 그 학문적 업적이 지대하다는 평을 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단호한 주장엔 권위가 배어 나온다. 더욱이 그의 대답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학교를 다니는 중에는 학비로 인한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되 졸업후에 반드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교육비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좋은 이야기다. 비록 지극히 이해타산적이긴 해도 계급·계층간의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데 있어서도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배려가 깊이질 않는다. 일부 대학의 경우는 존폐의 위기까지도 맛본 경험이 여러번 있다.

새정부가 감행하고 있는 개혁정치는 사학재단의 부정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그동안 정치권의 치마속에 파묻혀 있던 비리재단의 작태가 우리의 교육에 얼마나 커다란 치명상을 입혔는가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육영사업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한몫 한다는데 근본 취지가 있지만 상당수의 재단은 이를 태반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매각해 수익금을 챙긴다든지 학생들에게서 거둬들인 등록금을 유용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한 현실이다.

지난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편입학건등으로 구속에까지 이른 상지대는 심지어 재단이 신규로 임용된 교수들에게 임용조건으로 일정기간 월 급여를 받지않을 것을 강요하는 행태도 보였다고 당시 상지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밝히고 있다.

또 재단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부분 대학의 재단은 학생들에게 당해 학기에 지급해야할 장학금을 느지막이 지급함으로써 그 이자분을 사재로 챙기는 수법을 암암리에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제 재단은 종도독에 가까운 파렴치한으로 비춰지고 있다. 아루튼 재단비리는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사립대 재단이 과연 베커 교수의 주장처럼 쉽사리 학교에 투자를 확대할리 만무하다. 나중에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백번 천번 강조해도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조금의 여유도 가질 수 없는게 그들의 생리다.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비리를 저질렀던 많은 재단이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여전히 재단문제로 대학가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재단문제와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학은 동국대, 경기대, 서경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재단문제가 대학가에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지난 90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운영의 전권을 재단에 위임함으로써 교수재임용에서 재단에 자주 비판을 가한 눈엣가시인 교수들을 재임용탈락시키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에 재단의 측근 친인척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족벌체제를 형성하고는 무능한 대학당국을 앞세워 전횡을 일삼고 있어 대학은 이른바 '재단의 왕국'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수들까지도 재단횡전의 목소리를 높이고 종종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도 교육후진국을 만든 근본 요인이다. 얻간 국고보조금이 대학에 산외 0.7%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등 선진국이 사립대에 대해 가지는 정부부담이 20%~30%에 이른다는 사실과 비교했을때 너무 형편 없는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새해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반성의 뜻이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 봐도 사립대 재정지원에 대한 일언반구조차 없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우리나라엔 국립대가 50여개가 넘기 때문에 너무 많다는 것을 왜써 강조하기까지 한다. 국립대가 너무 많아서 교육비 지원이 파다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바꿔말하면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뜻이 된다. 더욱이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70%이상의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정부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교육 선진국의 미래상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부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재원을 마련치 못하는 무능한 총장과 비리만을 일삼는 재단은 교육계에서 하루빨리 떠나주는게 교육의 내일을 위해 협조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사립학교법으로 '재단왕국'전락한 대학

낮은 보조액에 청사진없는 정부태도 변화돼야

수원 '고황' 자치예산분배 문제제기

수원캠퍼스 2학기 자치회비 배분에 있어 자치회비에 교지대금분의 재책정이 제기될 움직임이다.

현재 1인당 자치회비 7천3백원중 교지대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1천3백원인데 사용부서인 고황교지편집위에서는 3학기째 그중 1천70원만을 비 배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비율은 1학기 배분율을 따르기로 하는 등지에 이러한 고황편집위의 적자를 감안하여 자치회비 인상시 교지대금을 1천3백원으로 복구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고황의 누적된 적자의 해결을 위해 현재 배분받아 교지발간에 사용하고 있다.

교지대금이 축소 책정됨에 따라 올 상반기 감사에서 고황의 3학기간 누적된 적자액이 7백만원에 달하고 각종 물가인상으로 인한 예산부족의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총대의원회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2학기 자치회비 배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비율은 1학기 배분율을 따르기로 하는 등지에 이러한 고황편집위의 적자를 감안하여 자치회비 인상시 교지대금을 1천3백원으로 복구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고황 적자 7백만원…대책마련필요

또한 지금까지의 고황의 누적된 적자의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적자분에 대한 세부내역과 고황편집위 적자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총대의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작업후 이번 학기에 교비지원 확충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고황편집위는 교지대금인 1천3백원은 자치회비의 부분이 아니고 또한 교지대금은 일반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책정되고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내리거나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황편집위는 이번 2학기 자치회비 배분시 교지대금인 1천3백원이 즉각 복구되어야 하고 이후에 인상작업은 고황자체내에서 설문조사등 독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타대학의 사례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적자부분의 해소를 위한 교비지원의 확충이라는 구체적 방법 또한 대의원회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 고황편집위 자체내에서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황 부편집장 박일환(사회·3)군은 "예산의 사용에 대한 감사는 대의원회의 당연한 업무이므로 고황편집위는 이에 성실히 따르지만 지난 3학기동안 축소되었던 교지대금은 반드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고황은 이미 이번 학기가 아닌 다음학기 자치회비 인상시, 교지대금을 인상시키기로 잠정합의한 상태이고 현재 2학기 자치회비 인출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교지대금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화 記者〉

(고) (황) (만) (평)

'올해 한가위 최고의 선물'

신입사원 모집요강

1. 모집인원(300명)

모 집 분 야	인 원
상경, 법행, 신방, 어문(영어, 일어, 중국어)	300명
화공, 화학, 기계, 선기, 전자, 금속, 전산, 식품, 섬유/의류, 산업공학	

2.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필기시험(단,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 면접전형

3. 응시자격
가. 모집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학사·석사학위 기재자 또는 1994년 2월 취득예정자
나. 군필 또는 군면제자
다.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석사 및 대학졸업 정교편 경우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그룹소정양식) ……면접용, 전산용(OMR) 각 1통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석사학위 이상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다. 자격 및 면허증사본(소지자에 한함) ……1통
라.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에 한함) ……1통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기간 : '93. 10. 5(화)~10. 13(수)
매일 09 : 30~17 : 00(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 : 그룹접수처 – 한화그룹 사옥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현장빌딩 26층 대강당
고황안내전화 ☎ 729-1083/729-4300

■지방교부처

교 부 처	전화번호	주 소
제일화공부산지점	(051)465-7533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43-1
제일화공대구지점	(053)423-0311	대구시 중구 삼덕 2가 149-132
(주)한화 울산지점	(052)242-8011	울주시 울산구 울장동 1003-292
제일화공전주지점	(0652)72-3500	전주시 완산구 덕진동 1가 44-1
제일화공대전지점	(042)284-180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9

6. 기 타
가. 입사지원서는 본인이 직접 성확하게 작성하되 허위기재사항이 판명될 경우 합격(입사)을 취소함
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증서 외기 우대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룹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별 모집분야

구 분	인문계 상경	인문계 법행	인문계 영어	인문계 일어	인문계 중국어	이공계 신문방송	이공계 화공	이공계 화학	이공계 기계	이공계 전기	이공계 전자	이공계 금속	이공계 전산	이공계 식품	이공계 섬유의류	이공계 산업공학	비 고
(주) 한 화	○											○	●				
검 인 에 너 지(주)	○	○				○	○	○	○							○	● 직원가족 중 ● 연구원 석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한 양 화 학(주)	○	○				○	○	○	○	○							
골 든 벨 상 사(주)	○	○		○	○	○											
한 국 종 합 기 계(주)	○		○			○											● 한양화학 동경공이에는 농화학 전공자 지원 가능
한국자동차부품(주)	○								○								
제 일 중 권(주)	○	○		○	○									○			
(주)제일정제연구소	●	○												●			
삼 화 특 자 금 속(주)	○																
비 원 개 발(주)	○																
(주) 한 양 유 통	○	○	○	○							○	○			○	○	● 그룹 종합연구소 화학분이에는 화학학위 소지자도 지원 가능
서울철강리믹시(주)	○																
동 양 전 자 홈 스(주)	○								○					○			
그 룹 종 합 연 구 소								●								●	

한화그룹 사옥 위치도

한화그룹